

# 장성호 황금대나무숲 '걷기 명소' 인기

산소 배출량 풍부 상쾌함 선사  
주말 평균 7000여명 찾아  
도시민 걷기코스로 각광



장성호를 찾은 방문객들이 녹음이 우거진 수변길 황금대나무 숲길을 걷고 있다. <장성군 제공>

“황금 대나무숲 맑은 공기 마시며, 장성호 수변길 걸어요.” 장성 대표 관광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에 아름다운 경관숲이 조성돼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호 진입로와 데크길, 옐로우 출렁다리 등지에는 약 1만㎡ 규모의 경관숲이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 평균 7000여명이 찾은 정도로 소중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접하는 경관숲은 황금대나무숲으로, 장성호 주차장 왼쪽 데크길 옆에 조성돼 있다. 길을 따라 다소곳이 이어진 황금대나무숲은 산소 방출량이 많아 걷는 내내 상쾌함을 안겨준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걸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어느새 가벼워지면서 감탄사가 새어나온다. 양반집 마당에만 심었다는 농소화로 조만간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다.

데크길 주위에선 봄부터 가을까지 이파리에서 황금빛을 발산하는 ‘금빛 단풍나무’도 찾아볼 수 있다. 운동 삼아 장성담 계단을 오르는 방문객들에게는 황금편백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황금편백은 항균 기능과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 정량감을 선사한다. 수변길을 따라 20분쯤 걸으면 옐로우 출렁다리에 도착한다. 이 일대에서는 7-8월이면 강렬한 자주빛 빛깔의 꽃이 인상적인 맥문동 군락지

를 만나 볼 수 있다. 울긋불긋 피어난 수국들과 함께 노랑 대사초도 눈에 띈다. 일반 풀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풀잎 안쪽에 살짝 노란빛이 감돈다. 어디에서나 잘 자라며, 잡초의 번식도 막아준다. 장성군 관계자는 “제조작업과 대나무 수기, 병해충 방제작업 등 경관숲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치유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 지적공부 국제표준좌표로 변환

관내 지적공부 약 39만 필지 완료

나주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적용해 온 지적공부 측량기준에서 111년 만에 탈피했다. 나주시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 측량기준을 최근 국제 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의미한다. 좌표계 원점을 특정지역이 아닌 지구중심에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본 영토(동경 원점)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 공부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해당 지역측지계는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세계표준 좌표와 비교했을 때 남동방향으로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가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900여개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관측, 기준이 되는 40점의 공통점을 확보해 관내 도해지역 지적공부 약 39만 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경계점좌표 등록 지역 약 1만 5000 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완료를 통해 우리지역 지적공부가 국제표준 좌표에 위치하게 됐다”며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는 물론 타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품질의 토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강진군-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넥스트로컬 시작

강진군이 서울시와 협력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3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와 전국 11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연계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창업으로 강진군을 선택한 12개 팀, 18명의 청년들은 6월부터 두 달 가량 강진에 머물면서 화훼, 관광, 청차, 전통주 등 강진군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나선다. 이후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팀은 최대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군은 최근 이틀간의 일정으로 ‘넥스트로컬 강진 지역캠프’를 개최해 팀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역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숙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풍부한 지역자원이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기회로 발전해 지역이 활성화되고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8개 팀 11명이 ‘넥스트로컬 2기’ 사업에 참여해 이중 3개 팀이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귀리와 청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고성사 가는 길 수국이 반기네 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강진읍 보은산 고성사를 오르는 길가에 수국이 탐스럽고 화사한 꽃을 피워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했다. <강진군 제공>

# 함평 특화 작목 ‘샤인머스켓’ 수출 법인 설립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 함평 지역특화 작목인 포도 ‘샤인머스켓’의 수출 법인이 설립됐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22개 농가가 참여한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김용오 대표)’이 최근 설립됐다. 이 영농조합법인에 참가하는 농가들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지역 전체(14ha) 대비 57%에 해당하는 8ha 규모다. 군은 오는 9월 중순께 약 40t의 샤인머스켓이 첫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재배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군은 지난달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포도수출연합 주식회사 황의창 회장을 초빙, 수출기준에 맞는 규격화된 포도 생산, 병해충 방제 및 알송기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 교육을 했다. 나재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샤인머스켓은 현재 전국 3862ha에서 재배되고 해마다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어 공급과잉에 대비한 수출 판로 개척과 유통 다각화가 필요하다”면서 “함평군이 전남의 포도 수출 선두주자가 돼 흉수 출하를 막고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